

아모르파티

로그라인: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과거와 사랑하는 딸이 있는 현재,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주인공이 아내가 있는 과거와 딸이 있는 현재를 두고 선택하는 이야기.

박남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55세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.● 딸의 출생과 동시에 아내를 잃었다.● 잔잔하고 무뎠던 성격이지만, 아내만은 사무치게 그리워한다.● 딸을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.
------------	---

1.

박남중 여행이라 더 괴로울 것 같아서요. (눈물을 억누르며) 저도 과거를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했습니다. 연지 엄마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죠. 연지가 과거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도, 막연히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. 근데요. 과거에서 연지 엄마를 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게 겁이 납니다. 지금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. (눈물이 맺힌다) 지금은 연지와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.

2.

박남중 (연지를 바라보고 울면서) 내가 너 없이 어떻게 너희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겠어... 연지 너는. 네 엄마가 남기고 간 선물이야.
(연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) 그렇게 보고 싶던 네 엄마를 만나도, 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. 너 없으면 안 돼, 연지야!

남중과 연지는 끌어안으며 오열한다.

박연지 (남중을 껴안고 울며) 미안해... 미안해, 아빠...

박남중 (연지를 껴안고 울며) 그런 생각 하게 해서 미안하다, 연지야...